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⑦

## 지도자가 되는 길

(느 1:1-11)



고 이종운 원로목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지도력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출생 시 주어지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나 갖고 닦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1.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도 있지만 낮고 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이들은 모두 지도자이며 느헤미야도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 포로의 신분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외국 땅에서 성장하며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항상 비참한 처지에 빠진 자기 민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왕이 매우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같은 중직을 버리고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00여 년이 넘도록 성을 쌓으려 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도자로서 종교적, 도덕적 개혁을 성취시켰습니다.

### 2. 느헤미야가 산 시대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 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140년 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을 잡아갔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통치하에 태어났지만 바벨론은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했고 파사에 다리우스, 아하수에로에 이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르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 3.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우리는 느헤미야사에서 무엇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느지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리더십, Leadership'에서 지도자는 우선권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First things first) 특히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 ① 지도자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4절)

많은 지도자들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행동이 요청되는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만하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합니다.

#### ② 지도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5-11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ACTS를 풀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찬양(Adoration) -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통치, 사랑,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5-6절).

\*고백(Confession of sin)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죄가 곧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며 자기 또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때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6-7절).

\*감사(Thanksgiving) -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신 28장, 30장)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감사했습니다(8-10절).

\*탄원(Supplication) -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의 수축을 돕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③ 지도자는 지구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2:1)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이들의 보고를 듣고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긴 시간 동안 같은 내용의 기도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조국을 살리고 민족을 구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특별한 지도자로 부각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지도력을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권능과 용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는 고 이종운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10편을 선정하여 사순절 기간까지 게재한다)

# 한국 기독교의 요람, 정동



손달익 위임목사

정동에는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무수한 최초들이 있다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정동은 말 그대로  
근대화의 요람이라 불릴만하다.  
정동이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는  
기독교의 영향도 적지 않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

서울 중구의 정동은 한국 근대화의 요람이라 불린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정동은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왕궁으로 사용된 경운궁(덕수궁)과 그 주변에 서양 각국의 공사관과 영사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근대 외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고 서구문화가 조선인과 밀접하게 만나는 첫 공간이었다. 공사관을 중심으로 서양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서양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유입되었다.

정동에는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무수한 최초들이 있다. 조선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재학당, 최초의 여성교육 기관인 이화학당,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 기관인 육영기관, 최초의 현대적 보육원으로 알려진 언더우드학당 등 조선의 근대교육의 출발을 알린 학교와 기관들도 모두 정동에 있었다. 최초의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신문사 사옥이나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던 정동제일교회, 최초의 서양식 파티가 열렸다는 손타호텔, 한국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인 보구여관 등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정동은 말 그대로 근대화의 요람이라 불릴만하다.

정동이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는 기독교의 영향도 적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 정동제일교회, 보구여관 등은 모두 기독교의 선교기관이었다. 이렇게 많은 선교기관이 정동에 웅기종기 모여있게 된 것은 선교 초기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의 선교 스테이션(Mission Station: 선교지부 또는 선교거점)이 정동에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선교 스테이션이란 선교사의 일상 생활과 전도·의료·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거점을 의미하는데 정동의 선교 스테이션은 한국에 조성된 첫 선교 스테이션이었다.

알렌이 첫 정주 선교사로서 정동에 사택을 마련한 이래 제중원을 통해 입국한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의 선교사들은 정동에 차례로 사택을 마련하고 스테이션 부지를 조성해 나갔다. 장로회의 스테이션

은 지금의 중명전과 예원학교 일대, 그리고 이화여고 자리의 일부에 자리 잡았고 감리회의 스테이션은 바로 길 맞은편인 정동제일교회, 배재빌딩, 이화여고 일대에 위치하였다.

이어 1890년 한국 선교를 시작한 영국 성공회가 장립성당을 건축하며 정동에 합류하고 1900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교회가 1903년 성 니콜라스 성당을 건립하고 자리잡게 되면서 정동은 다양한 교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해 갔다. 1926년 구세군이 신학교인 구세군 사관학교를 정동에 건립하자 그 다양성은 더욱 풍성해졌다. 이렇듯 정동은 첫 선교 스테이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교파가 공존했던 지역으로서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라 불리는 것이다.

현재 정동에는 감리회, 성공회, 구세군의 선교 유적들은 남아있지만 장로회와 정교회의 유적은 남아있지 않다. 정교회는 원체 교세가 작아 성 니콜라스 성당 외에는 건물이나 기관을 세우지 않았다.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일시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추방되기도 하였고 1917년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본국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 니콜라스 성당은 1967년 마포구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장로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었다. 장로회의 기관으로는 고아원으로 시작한 언더우드학당(현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여성교육기관 정동여학당(현 정신여자중고등학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이자 조직교회인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가 있었다. 나아가 장로회 스테이션에서는 교파를 뛰어넘는 선교 연합기관, 성서번역위원회(현 대한성서공회)와 조선성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가 출발하였다. 하지만 고종이 경운궁을 확장하기 위해 장로회 선교 스테이션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장로회 선교사들은 1902년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장로회 서울 선교 스테이션의 흔적은 연지동에 일부 남아있을 뿐 정동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정동제일교회



정동교회(새문안교회)



우리나라 첫 여성전문병원 보구여관

###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12-16)



#### 신임 교역자 소개

###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최종국 전도사  
(초등부 지도교역자)

위임목사님 목회지원과 초등부를 섬기는 최종국 전도사입니다. 서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조부께서는 6.25 전쟁 참전 중에 미군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역 후에는 목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현재 충남 아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저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었고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교회에 가장 오래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저의 삶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유에스터 사모 그리고 6월에 출산 예정인 최가을 세 명입니다. '가을'



이란 태명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열매라는 의미를 담아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지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위임목사님 목회지원 사역과 초등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호산나대학, 2023학년도 입학식 개최

호산나대학은 3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본 대학 대강당에서 신·편입생 20명을 비롯한 재학생 및 학부모, 관련 주요인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8회 호산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식 1부는 입학 예배를 시작으로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장 겸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신 손달익 목사님의 설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와 축도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입학허가 선언, 축사, 격려사, 환영사, 장학금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서울교회 손달익 담임목사 외 장로님,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김용운 총재 외 임원진 등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



① 설교하시는 손달익 목사님 ② 장학금 수여한 학생들 ③ 2023 신입생들 ④ 장학금 수여식

면으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교회 법인 장학금,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장학금, (주)프로에스콤 장학금, 부모회 장학금, 성적우수상 등 신입생과 재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김용운 총재

는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호산나대학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달장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지원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애견 관련 체험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3년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교회는 권사회(회장 장호림 권사)의 제안을 받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인 장로)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오는 4월 1일(토요일),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총괄 아래 전교인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은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있는 날로 성도들은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후 바로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 시간을 택하여 참여하여도 된다.

또한 당일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부서는 한 주일 전에 쓰레기와 쓰지 않는 집기 등을 미리 치우도록 하고 각 층별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층별 팀장들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로서 교회는 매년 전교인이 참석하는 청소 축제를 정례화하고 온 성도가 항상 교회의 청결을 유지하는 마인드를 고취하며 각 부서는 수시로 청결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신청 방법 등은 차후 순례자를 통해 공지한다.

### <2023 서울교회 청소 대축제 조직>

- 총괄: 손달익 위임목사
- 위원장: 이계홍 서기장로
- 본부장: 이강인
- 차장: 예완식
- 안전관리 및 검사: 서은석
- 실행위원: 유태서 장상국 정승균

### <구역별 담당>

- 지하층 대장: 오윤걸 / 부장: 임우택 / 간사: 허경화
- 1층 대장: 노제현 / 부장: 김광래 / 간사: 유미영
- 2, 3층 대장: 김승록 / 부장: 홍창훈 / 간사: 김인아
- 4층 대장: 차영도 / 부장: 박광식 / 간사: 이현정1
- 5층 대장: 이민호 / 부장: 옥종호, 소훈 / 간사: 박현영
- 6층 대장: 유충기 / 부장: 장창수, 임대중 / 간사: 노애리
- 7층 대장: 김혜연 / 부장: 이승준, 한대석 / 간사: 김양희2
- 8층 대장: 김광태 / 부장: 장호림 / 간사: 제오복
- 9층 대장: 이영희 / 부장: 심상필
- 외곽: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 간사: 박혜정3
- 식사: 장호림, 백영자, 허숙, 김선영, 김정두

### 지난주 우리 교회는...



① ② 지난주 찬양예배 시간에 '2023상반기 장학생 장학금 수료식'이 있었다. 모든 장학생들이 믿음의 동량으로 자라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70인전도대 발대식 겸 단합대회 ④ ⑤ ⑥ ⑦ 70인전도대와 에스더전도회의 수요노방전도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동정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3일	월	신 29:1-31:29		대하 1-8	
3월14일	화	신 31:30-34:12		대하 9-18	
3월15일	수	수 1-4		대하 19-25	
3월16일	목	수 5-8		대하 26-33	
3월17일	금	수 9-11		대하 34-36, 스 1-2	
3월18일	토	수 12-14		스 3-10	
3월19일	주일	수 15-17		느 1-7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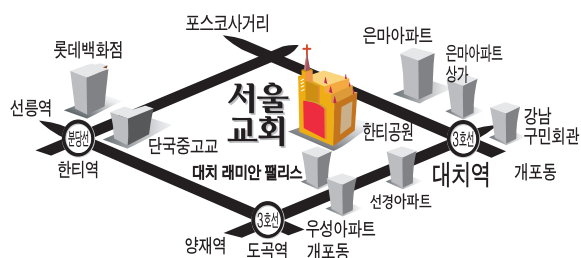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랑과 섬김의 순례길 걷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다시 시작하는 70인전도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며, 코로나 시대를 넘어 전도에 힘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오전 11시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